

틈복스 '지금의 소설' 시리즈

젊은 작가들의 새로운 상상력 인문학

나우NOW, 바로 지금. 머뭇거리 좋은 일 없겠지만, 책을 읽는 일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바지주머니 속에 쏙 들어가는 작고 가벼운 틈복스 '지금의 소설' 시리즈는 "가방 무겁고 시간 없다"며 책읽기를 멀리하는 사람들의 변명을 궁색하게 만든다. '지금의 소설' 시리즈가 내세우는 '지금'의 의미는 언제 어디서든지 읽을 수 있게 한 작은 판형에만 있지 않다. 젊은 작가들이 갖 지어낸 따끈따끈한 작품을 독자들에게 바로 내놓겠다는 의지 또한 함께 담고 있다. 틈복스 안동욱(28) 대표는 "독자들과 적극적으로 만날 루트를 출판계 틈새시장에서 찾은 것이 주효했다"며 '지금의 소설' 시리즈에 대한 자부심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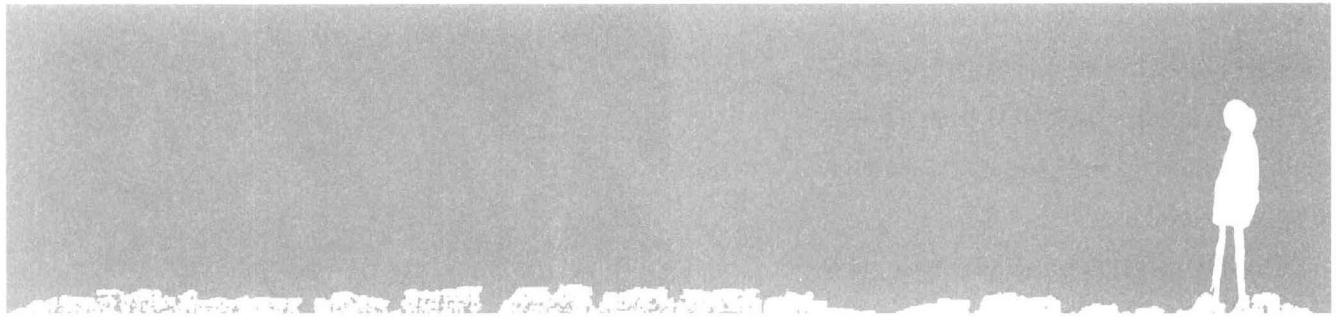


그 많던 젊은 작가들은 다 어디로 갔나
"많은 지면으로 등단한 젊은 작가들이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현실이 아쉬웠습니다. 문단권력이 젊은 작가들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는 일 역시 속상했지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실력 있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의 소설' 시리즈는 열혈문학청년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작품'이다. 젊은 작가들이 사장되는 부조리한 세대를 못 견뎌 한 안동욱(28), 조병세(30), 김현(26) 세 사람은 '지금의 소설' 시리즈를 기획, 폐기하나만 믿고 출판사 틈복스를 차렸다. 작가섭외와 계약, 편집과 영업 등 출판경영 노하우가 전무했으나 큰 걱정은 없었다. '지금의 소설' 시리즈 기획의도를 믿고 따라준 젊은 작가들의 동참이 힘이 된 것이다.

"작가섭외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150여 명의 젊은 작가들에게 전화와 메일을 통해 기획의도를 알렸습니다. 초짜 출판사의 당찬 포부를 전달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더군요. 20~30여 명의 작가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반신반의하다 거부사를 밝힌 작가들이 서운하기도 했지요."

서준환의 《파란 비닐인형 외계인》, 최대환의 《새드마우스의 1920년대》, 우광훈의 《목구멍 깊숙이》로 첫 선을 보인 '지금의



소설' 시리즈는 현재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직장인 이광일(27) 씨는 "손바닥만한 책의 크기도 신선하지만, 젊은 작가들의 재기발랄한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시리즈"라며 "새로운 독서문화를 만드는 데 한몫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리즈 첫 권에 이름을 올린 소설가 서준환 씨 역시 "작품 출간의 좋은 창구가 마련되어 젊은 작가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시리즈는 작가와 독자 모두를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말했다. 한편 서씨는 자신의 일인 것 마냥 틈복스의 일에 두 팔을 걷고 나서 많은 힘을 보태기도 했다. 눈여겨본 프랑스작가의 소설을 손수 번역한 원고를 넘겨주기도 했고, 가을쯤에는 작업중인 경장편 원고를 넘겨주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전 세대 소설가들의 주옥같은 작품도 물론 많습니

두어 더 적극적으로 독자와 소통할 생각입니다."

온라인 모임이지만 온라인에서만 놀지 않는다는 것이 '캥거루 제너레이션'의 철칙. 출간된 책의 저자를 '소환'해 '소풍'이란 클래식한 이름의 오프라인 모임을 갖기도 한다. 서준환 작가와 함께 대학로와 인사동에서 가진 두 번의 소풍에서는 권커니 잣커니 '술 맛 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격식을 갖춘 의례적인 '작가와 대화'가 아닌, 작가와 진정으로 교감할 수 있는 자리라 회원들의 참여는 열성적이다.

'지금의 소설' 시리즈만의 기발한 아이탬은 그것만이 아니다. 시리즈 뒤표지는 '캥거루 제너레이션'에 게재된 회원들의 독자서평과 사진으로 꾸며진다. 우수회원에게는 표지모델이 되는 영광도 주어진다. 작가뿐만 아니라 독자의 호응도 함께 느낄 수 있

책을 다시 읽자는 것이 틈복스의 모토입니다. 좋은 책을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들과 함께 하는 일에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자신의 글과 사진이 담긴 책을 본 캥족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엄숙하고 신성한, 작가만의 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 이번 시리즈에서는 젊은 작가들의 특별한 감수성을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 만큼 젊은 세대들이 '지금의 소설' 시리즈를 관심 갖고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애정 어린 충고가 이어진다면 더욱 좋겠지요."

새로운 독서문화 이끌 캥거루족 키워

'지금의 소설' 시리즈만의 또 다른 특별함은 독자와 함께 새로운 독서문화를 만들어간다는 데 있다. 틈복스는 시리즈 출간에 앞서 '캥거루 제너레이션'이라는 별난 이름의 인터넷 커뮤니티 클럽을 개설했다. 젊은 작가들의 신작을 주머니 가득 안고 유쾌한 책임기를 확산하는 캥족캥거루족 번식이 '캥거루 제너레이션'이 추구하는 목표. '지금의 소설' 시리즈 출간소식과 독자 서평이 담긴 '틈진 TEUMZIN', 좋은 시와 산문, 동영상에 담긴 '행복한 책임기', 회원들의 창작마당인 '글쟁이 캥족들' 등 각기 카테고리마다 현재 200여명 캥족의 참여가 활발하다.

"책을 읽는 사람들의 모임,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보다는 새로운 독서문화를 만들어가는 의식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인턴 기자 김현 씨가 커뮤니티를 맡아 잘 관리하고 있지요. 시리즈 권수가 많아지고 회원이 늘면 독립부서로

는 책이 '지금의 소설' 시리즈다.

"책을 다시 읽자"는 것이 틈복스의 모토입니다. 좋은 책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들과 함께 하는 일에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자신의 글과 사진이 담긴 책을 본 캥족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엄숙하고 신성한, 작가만의 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소설' 시리즈는 민예숙 씨의 《황강 가는 길》과 이송여 씨의 《내가 아는 당신》을 다음 권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작가들이 보내온 원고만 십여 권 분량, 오늘 연말까지 25권 정도를 출간할 계획이다. "활발하게 시리즈를 쏟아내고 싶지만, 출판사 재정형편상 출간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아쉽다"고 안 대표는 말한다.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문고판보다 작은 사이즈입니다.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바로바로 독자들에게 전한다는 것도 시리즈만의 매력이 되겠지요. 짝고 만드는 데만 열을 올릴 뿐, 수입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애초 기획에서부터 수입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지요. '지금의 소설' 시리즈를 읽는 사람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면 가장 큰 보람일 것입니다." **▶▶▶**

취재 박용두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